
전체 주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주님의 회복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12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분별

성경: 느2:4, 10, 17-20, 계21:18-20, 민6:1-9, 22-27, 요일2:15-17

I.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한 것이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한다—느2:4, 10, 17-20, 4:11-23, 계21:18-20.

II.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로 분별하는 나실인들, 즉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민6:1-8, 22-27, 시 73:25-26, 렘32:39, 고후13:13.

A. 예표에 의하면, 인류 가운데 유일한 나실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실인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요4:34, 5:19, 30, 7:18, 14:24.

B. 나실인의 분별이 칠 일간 계속된 것은(행21:27) 완전한 행로, 심지어 평생을 상징한다—민6:8, 참조 고전5:7-8, 출12:15, 13:9, 2-4, 6-7.

C. 이기는 이들은 모두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중 헌신이 있는 나실인의 원칙 안에서 산다—고전6:15-20, 롬12:1-2, 9:23, 참조 단5:23.

1. 나실인은 반드시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포도주나 포도의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삼가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민6:3-4, 참조 시104:15, 전10:19, 단1:8, 약4:4, 요일2:15, 계2:17.

a. 세상적인 쾌락은 정욕적인 행위와 정욕적인 의도로 이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반드시 세상적인 포도주를 삼가해야 한다—삿9:13, 마9:17, 엡5:18, 요일 2:15-17, 딤후3:1-5, 참조 사42:4.

b.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43:4, 16:11, 36:8-9, 46:4, 48:2, 51:12, 느8:10, 렘15:16, 애3:21-24, 55-56, 찬송가 1028장.

2. 나실인은 반드시 배역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그의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거절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민6:5, 참조 고전11:3, 6, 10, 15.

- a. 나실인은 주님의 머리 되심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대표 권위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엡1:10, 22하-23, 골1:18, 롬13:1-2상, 엡5:21, 23, 6:1, 히13:17, 뵤전3:1-7, 5:5.
 - b. 나실인은 털이 많은 사람, 순복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순복하는 분위기와 의도가 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나 당신의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골1:18, 2:19.
 - c.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 아래 있는 것은 복이다. 심지어 혹독하게 제한받는 것도 복이다. 나는 내가 회복에 온 날부터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아래 두신 것을 감사드린다.” —위트니스 리, 민수기 라이프-스타디 84쪽, 참조 엡4:1.
 - d. 삼손은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일평생 나실인이었고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그의 긴 머리털에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복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삿16:17, 참조 수9:14.
3. 나실인은 반드시 사망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그의 가까운 친척의 죽음이나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는 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함으로 상징되었다—민6:6-7, 9.
 - a.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보다 더 더럽히는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사망—거칠은 사망(들짐승의 사체), 부드러운 사망(생축의 사체), 간교한 사망(기는 것들의 사체)이 퍼질 수 있다—레5:2, 계3:4, 롬8:6.
 - b. 우리는 반드시 ‘반사망(反死亡)’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대적에 맞서 싸우는 기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영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후5:4, 6:1상, 마26:41, 단6:10, 9:17.
 - c. 집회에서 죽어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 죽어가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주여, 모든 죽음과 영적 사망에 대해 당신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여, 이 집회를 당신의 승리하는 피로 덮어주소서. 이 피 아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 d.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형성을 위해 계수되어 매우 깨어 경계하며, 사망에 맞서 싸우는 전쟁을 위한 느낌으로 충만하다. 사망의 세균들이 교회 생활 안에도 있으므로 우리는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맞서 싸우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전15:26.
 4. 나실인은 반드시 타고난 애정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을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었다—민6:7, 마12:46-50, 고후5:16.
 - a. 타고난 애정을 가진 타고난 생명은 발효시켜 썩게 하는 꿀로 예표되었다(소제에서 꿀은 금지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는 타고난 생명의 꿀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레2:11, 행15:35-39, 25-26, 골4:10.
 - b.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뵤2:2, 고전13:4-8, 13, 딤후1:7.
- D. 일단 우리의 이전 분별이 무효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분별해야 한다—민6:8-21.
 - E.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분별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22-27.